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보고

2018년 8월 24일(금) ~ 28일(화), 한국 서울시의 더케이(The K-Hotel) 호텔에서 21개국으로부터의 등록참가자 379명이 함께 한 제 4회 아시아미래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종합 테마는 ‘평화, 번영,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 6.25 전쟁 이후 한국은 끊임없는 노력과 해외로부터의 많은 원조에 힘입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개발에 따른 고통과 괴로움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한국 서울에서 개최된 이 회의가 앞으로의 아시아에서의 ‘평화, 번영,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회의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의 과제를 다루고 기조강연과 심포지엄, 초대강사에 의한 원탁회의, 그리고 다수의 연구논문의 발표를 통해 국제적이며 학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로부터의 참가자들의 도착 예정인 8월 24일(금)은 한국에서는 6년만이라는 태풍 19호가 서울을 직격한다는 예보가 일찍부터 내려져 동남아시아로부터의 비행편이 수 편이나 취소되었지만, 태풍의 진로가 동쪽으로 꺾여 대부분의 참가자가 그날 안으로 회장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날인 8월 25일(토) 오전 중에는 2개의 원탁회의와 10개의 분과회가 동시 진행되었습니다. 원탁회의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탁회의 A ‘제 3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조성: 동경클럽)

이 원탁회의에서는 동아시아의 역사화해를 실현하는 동시에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안정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사를 넘어서는 것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일본의 ‘일본사’, 중국의 ‘중국사’, 한국의 ‘한국사’를 대화시키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번 회의는 5회 시리즈 중 제3회로서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란에서 안정으로’라는 테마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와세다 대학의 ‘화해학의 창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역사 대화의 시도에 대해서 되짚어 보았습니다. (한중일 동시 통역)

◇원탁회의 B ‘제 2회 동남아시아 종교 간의 대화’에서는 ‘관용과 화해: 분쟁 해결과 평화 구축을 향한 종교의 역할’을 테마로



하였습니다. 대립과 분쟁의 원인이 정치 경제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대립의 양상을 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종교가 민족과 집단의 기층문화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분쟁 해결, 평화 구축의 경험 및 연구를 기초로 하여 화해, 평화 구축을 향한 종교 및 종교자의 역할, 그리고 ‘평화와 화해’ 로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사용언어: 영어)



점심식사와 휴식 이후, 오후 2 시부터 개회식이 시작되어 아카시 야스시 대회회장이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습니다. 공최의 한국미래인력연구원의 이진규 이사장의 환영 인사 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로부터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AI 와 인간의 마음, 그리고 미래’ 를 제목으로 하는 기조강연 및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정지훈 교수의 ‘AI 의 현재, 그리고 미래’ 와 서울대학교 김기현 교수의 ‘AI 와 인간의 마음’ 의 두 기조강연 후, 공최의 한국사회과학협회의 박찬욱 회장의 진행으로 한국정치학회 김의영 회장, 한국사회학회 신광영 회장, 대한지리학회 이용우 차기 회장, 국제개발협력학회 권혁주 차기 회장, 한국국제정치학회 김석우 회장을 토론자로 모시고 AI 가 사회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한영 동시통역)



마지막으로 400 명이 넘는 참가자들은 한국전통악기를 연주하는 HONA 라는 밴드의 재즈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 프로그램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AFC/2018/conference-program/>

이후 태풍이 지나가고 맑아진 날씨의 옥외 정원에서 열린 웰컴 파티는 재즈 공연을 들으면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8 월 26 일(일) 오전 9 시부터 12 개실의 소회의실에서 분과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날의 오전 분과회와 합쳐 총 7 개의 그룹 세션, 6 개의 학생 세션, 43 개의 일반 세션에서 224 편의 논문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특정 분야의 학술학회와는 다르게, 아시아미래회의는 국제적이며 학제적인 어프로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발표자가 두고 시에 선택한 ‘평화’, ‘행복’, ‘혁신’ 등의 토픽에 기반하여 조정된 각 세션에서는 다각적이며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습니다.



일반 세션과 학생 세션에서는 각 세션마다 2 명의 좌장의 추천에 의해 우수발표상이 선고되었습니다. 우수발표상의 수상자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AFC/2018/files/List_of_AFC4_BEST_PRESENTATIONS.pdf

우수논문은 학술위원회에 의해 사전에 선고되었습니다. 2017년 8월 31일까지 발표요지, 2018년 2월 28일까지 풀페이지가 온라인 투고된 137 편의 논문을 14 개 그룹으로 나누어, 하나의 그룹을 4 명의 심사원이 (1)논문 테마가 회의 테마 ‘평화, 번영,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와 적합한지, (2)알기 쉬우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지, (3)독자성과 혁신성이 있는지, (4)국제성이 있는지, (5)학제성이 있는지 라는 지침에 따라 사독하였습니다. 각 심사원은 그룹 중 9~10 편의 논문에서 2 편을 추천하여 집계 결과 상위 19 편을 우수논문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수논문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AFC/2018/files/List_of_AFC4_BEST_PAPERS.pdf

클로징 파티는 같은 날 오후 6시 반부터 피아노 연주회로 시작하여, 이마니시 준코 AFC 실행위원장의 회의 보고 후에, 공최의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박찬욱 회장의 건배로 축배를 들며 회의의 성공을 축하하였습니다. 연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우수상의 수상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상식에서는 우수논문 저자 19 명이 단상에 올라 아카시 야스시 대회위원장으로부터 상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이어서 우수발표상 48 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파티의 중반에는 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개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필리핀 대학 Los Banos 분교의 총장으로부터의 환영 영상과, 실행위원회의 인사, 그리고 필리핀으로부터의 참가자 전원이 등장하여 필리핀판 강남스타일 댄스를 선보여 회장의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8 월 27 일(월), 참가자는 각기 비무장지대 스터디 투어, 서울전통건축 투어, 서울시내 관광, 남한산성 스터디 투어, 난타 관람 등에 참가했습니다.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 ‘평화, 번영, 그리고 역동적인 미래’는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SGRA) 주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재단법인 미래인력연구원의 공최, 문부과학성, 주한일본대사관, 서울재팬클럽의 후원, 일반사단법인 동경클럽의 조성, CISV Korea, 공익재단법인 혼조국제장학재단, (주)Doalltec, (주)글로벌 BIM 의 협력, 그리고 (주)POSCO 건설, (주)HAEAHN Architecture, (주)NI 스틸, (주)중외제약, (주)미쓰비시상사,



(주)도쿄해상홀딩스, (주)고쿠요, (주)가지마도로, (주)다이코물산, (주)가지마건설총합관리, (주)이스트부동산, (주)Kajima Overseas Asia Pte, (주)가지마건설의 협력을 받았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아쓰미 펠로우를 중심으로 실행위원회, 학술위원회가 조직되어 포럼의 기획에서부터 홈페이지의 유지 관리, 우수상의 선고, 회의 당일의 접수까지 모든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한국 출신의 아쓰미 펠로우에게는 번역 및 비자 초대장 준비부터 당일 회의 진행에 있어서의 잡무까지 많은 협력을 받았습니다.

400 명이 넘는 참가자분들, 개최를 위해 지원해주신 분들, 여러 면에서 불런티어로 협력해주신 분들의 덕분에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가 성공리에 실시될 수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아미래회의는 국제적이며 학제적인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여, 글로벌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를 과학 기술의 개발과 경영 분석만이 아니라 환경, 정치, 교육, 예술, 문화 등 사회의 모든 차원에서 다면적으로 검토하는 장을 제공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SGRA 회원만이 아니라 일본에 유학하여 현재 세계 각지의 대학 등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연구자, 그 학생들, 그리고 일본에 관심이 있는 젊은 연구자 및 중견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정보·의견·문화 등을 교류·발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 취지에 찬동해주신 모든 기관의 지원과 협력을 얻어 개최하는 것입니다.

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는 2020 년 1 월 9 일(목)부터 13 일(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지원,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4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사진(하이라이트)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aisf.or.jp/sgra/active/photo-gallery/2018/11344/>

환송회 때의 사진(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vDAm7GD8I_g

제 5 회 아시아미래회의의 팸플릿

http://www.aisf.or.jp/AFC/2018/files/5thAFC_Flyer_Front_light.pdf



(문책: SGRA 대표 이마니시 준코)